외길 30년 계승자, 초의 스님 '차향 순례'

다맥 전수자 박동춘 박사 우리 茶 기행

다산 · 추사 등 지식인과 교류
시와 차 나눈 흔적 인문학 기행
응송 스님 '다도전게' 최초 공개

박동춘은 다인(茶人)이다. 그는 조선 후기 사멸 위기에 처했던 우리 차 문화를 부흥시킨 초의 선사(1786~1866)의 정통 다맥을 이은 '초의차' 5대 전수인이다. 초의의 다맥은 범해 금명 응송을 거쳐 박동춘에게 전해졌다.

박동춘은 최근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를 펴냈다. 책에는 저자가 응송 스님(1893~1990)에게서 제다법과 차 이론을 배우고 받은 '다도전게(茶道傳偈)'가 최초 공개돼 있다.

응송 스님은 저자에게 전한 다도전게에서 "전함이 없는데도 전했으며 받음이 없는데도 받은 것이라/ 전함이 없으니 그것은 참으로 전한 것이요/ 받음이 없는 고로 참으로 받은 것이라"라고 적었다.

저자가 차를 만들고 연구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저자는 금석학의 대가인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한학을 사사했고 성균관대에서 유학을, 동국대에서 선학을 공부했다.

현재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초의 선사와 차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지어 세상에 선보인 저자는 한세대를 훌쩍 넘어선 길다면 긴 이 세월을 차와 함께 흘려보냈지만, 이제 비로소 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인 것 같다고 말한다.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탈고 후, 초의 선사와 인연 있는 곳을 답사하며 자신의 다도 인생 30여 년을 둘러보고 그 술회를 적은 결과물이다.

책에서는 강진 다산초당에서 청년 시절의 초의에게 시학과 주역을 가르쳐준 다산 정약용과 평생 초의를 후원해준 다산의 아들들, 초의와 동갑내기로서 평생을 지기지우로 지내며 맑은 정신 세계를 교감했던 추사 김정희, 절창의 시문으로 '초의차'의 웅대한 경지를 묘사했던 박영보와 신위, 황상 등 조선 후기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다.

산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우리 차의 진수가 조선 후기 눈 밝은 사대부들을 만나 하나의 '문화'로 만개하는 광경은 초의 다산 추사라는 걸출한 세 인물의 숨겨진 곡절을 전해 듣는 일만큼이나 깊은 감흥을 준다.

차를 만드는 명인이자 차이론 연구학자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차 문화'를 조형하며 한국 전통차의 향방을 되묻고 있다. 옛 선인들이 그랬듯 탁마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중에게 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차의 역사는 신라 말기 선종과 함께 유입되면서 시작됐고,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사찰의 주도하에 송나라에 비견될 만큼 차 문화가 융성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로 들어와 배불 정책이 실시되면서 쇠퇴기에 이른다"고 말한다.

때문에 왕실의 무관심은 당연했고, 다만 음다(飮茶)의 이로움을 인식했던 소수의 문인이나 수행승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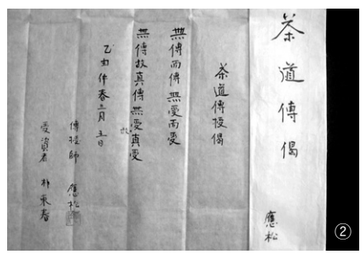
저자는 "조선 후기 초의 선사라는 걸물에 의해 한국 차가 중흥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그의 차원 높은 선다(禪茶) 정신과 투철한 장인 정신 외에도, 그의 차에 담긴 선미를 알아본 조선의 지식인들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만드는 '동춘차'는 이 '초의차'의 계보를 잇는다. 그의 차는 고려대 고미술학과 변영섭 교수에 의하면 기운이 좋고 시원한 방향(芳香)이 나는 차, 녹 황의 황금비례가 갖추어진 맑은 차다. 특히 그는 차를 우릴 때 열탕(熱湯)을 고집한다. 펄펄 끓인 물을 기포가 막 가라앉는 정도에서 뜨거운 채로 붓는 열탕법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전통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시종일관하여 담박(澹泊)하고 소쇄(瀟灑)하여 맑고 시원한 한국성을 지향한다. 산 높고 물 맑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산자수명(山紫水明)한 풍토에서 형성된 한국적 '맑음'이 저자 박동춘의 차에 고여 있다.

초의의 후학이자 오늘날 그 차의 품격을 되살려내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초의 선사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삼향을 기점으로 그가 거쳐 간 운흥사 쌍봉사 대흥사 학림암 등을 잇는 길을 되짚으며 옛 다성(茶聖)이 남긴 정신과 인연의 흔적을 좇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①초의 선사로부터 다맥을 이어 박동춘 소장에게 전한 응송 스님
②최초공개된 응송 스님이 박동춘 소장에게 전한 다도전게.
③초의 선사가 상주했던 해남 대흥사 일지암 연못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박동춘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9800원

남도 폐사지의 아름다움 담아

이지누 작가, 전국 폐사지 답사기 全8권 중 첫 권 펴내

폐사지는 중요성에 비해 인기 있는 답사지는 아니다. '폐허'라는 이미지가 답사객들의 발길을 막기 때문이다. 잘해야 석조 유물 몇 점, 아니면 텅 빈 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런 오해(?)를 불교유적답사가 이지누 작가는 가볍게 넘어선다.

이지누 작가는 최근 펴낸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니〉에서 폐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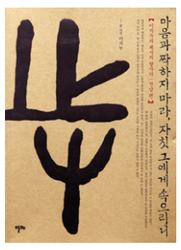
"폐허란 그저 지저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돈해야 할 공간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폐허의 스산한 풍경이 혐오감이나 두려움만 발생시키던가. 그렇지 않다. 아름다움이란 음양 모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어떤 것에 비해 우월하거나 우선하지 않는다."

저자는 폐사지 답사와 별도로 여러 폐허들을 둘러본 경험이 있다. 태백 등의 폐광, 서해안 염전, 도시의 재개발지역 등.

저자는 "폐허가 인간 본성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톺아보지 못하는 눈과 마음으로 어찌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겠는가"하고 말한다.

책은 이 특별한 아름다움에 취한 저자가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돌아보고 적은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 첫 번째 갈무리인 책은 전라남도의 폐사지 아홉 곳을 답사해 담고 있다.

저자는 전북 충청 경기 경주 강원 경남 경북 지역 폐사지를 돌아보고 적은 책도 펴낼 예정이다.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니
이지누 지음
알마 펴냄
2만2000원

이번 책은 진도 금골산 토굴터, 장흥 탑산사터, 벌교 징광사터, 화순 운주사터, 영암 용암사터 · 쌍계사터, 강진 월남사터, 곡성 당동리 절터, 무안 종지사터 등 맑은 선풍이 맹렬했던 남도의 폐사지 풍경을 글과 사진으로 오롯이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전국 5400여 폐사지 가운데 전라남도를 그 첫 번째로 택했을까?

남도는 불교문화가 활발히 꽃 피우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중앙정부인 경주와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고려의 개경, 조선의 한양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사정거리 안에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다.

월남사터는 월출산 기슭에 자리잡은 평지가람이다. 진각국사 혜심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저자는 이 같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남도가 경제 ·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낙후됐지만 오히려 사상은 분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불교사상은 물론 불교미술 또한 여타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역사적으로도 남도는 한반도에 수차례 새로운 사상적 기운을 불어넣었다. 나말여초 완도 청해진을 통해 선종이 유입됐고, 고려 시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정혜결사 등 결사운동의 진원지였다. 또, 조선 후기에는 대흥사 등을 중심으로 유교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책에는 수록된 작품에 가까운 사진이 일품이다. 100컷의 사진 한 장 한 장 소장하고 싶을 만큼 인상적이다.

저자는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 불리던 계간지 〈디새집〉을 만들며 보여줬던 실력을 이 책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디새집〉은 2000년대 초한 일간지에서 '잡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저자는 "남도처럼 기존 질서와는 다른 불교문화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남도는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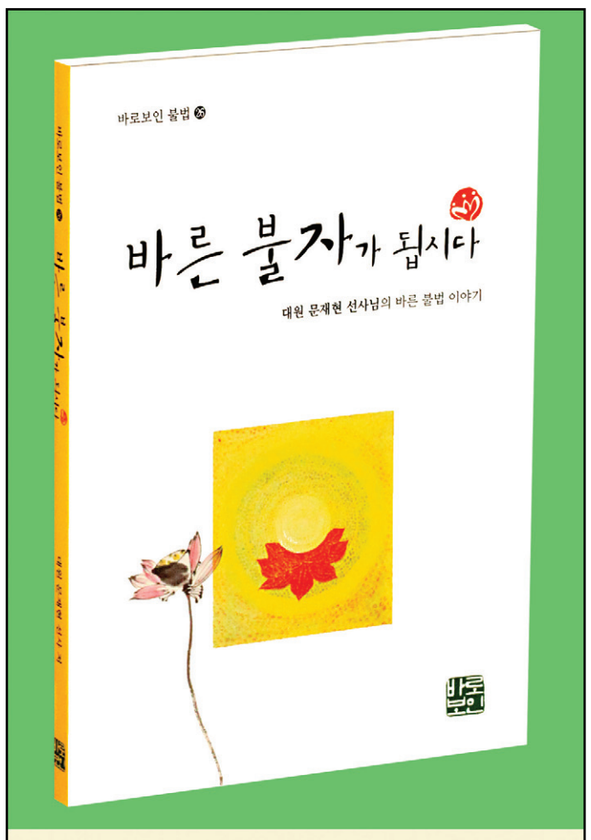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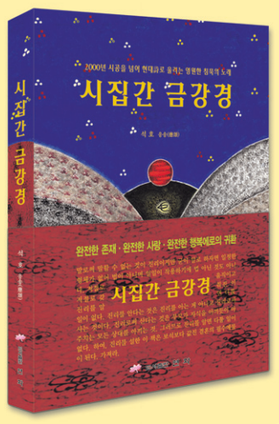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5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6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외	불광출판사
7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8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9	마음수업	이광정	휴
10	붓다 일어서다	손석춘	들녘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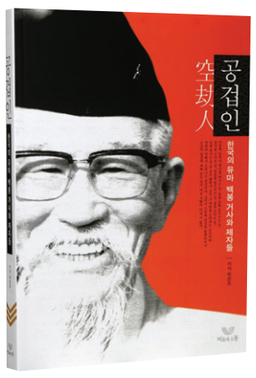
금강경이 시집갔다?
화제의 책
시집간 금강경



응송 : 석 호 스님
신국판 | 359쪽 |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화 刊

완전한 존재(無相), 완전한 사랑(無住),
완전한 행복(妙有)에로의 귀환!
단 한 번의 정독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하면 단연 석호스님의〈시집간 금강경〉입니다. 진리는 잡을 수 없지만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정독하십시오
〈전국 서점 및 인터넷서점 절찬 판매중〉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공겁인 空劫人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
8년여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린 가르침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재가 불자를 비롯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칼라 |
440쪽 | A5 | 값 16,5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붓펀...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